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Romantic Beliefs on Motivation of Marriage Among College Student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학전공

석사과정 주 언 희*

부 교 수 유 계 숙**

Majored in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

Master Course : Ju, Un-Hee

Associate Professor : Yoo, Gye-Sook

<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what consists of romantic beliefs of college students, the overall tendency of the beliefs and motivation of marriage, the differences in the belief and motivation of marriage, and the influence of the beliefs toward it. A survey method was used and 394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are four components in students' romantic beliefs, which are almighty love, destined love, hopes for romantic love, and only one & true love. Second of all, the students somewhat showed high level of romantic beliefs. This resulted due to the high level of romantic love but low level of only one & true love. Moreover, their motivations toward marriage which consists of intimacy and economic needs, were seen as the most important values in determining marriage. However, marriage due to social impact and the needs for personal growth were found to be placed in the lowest. Thirdly, male students in particular, showed higher beliefs in almighty love and destined love. The students of religion reported higher beliefs in destined love and only one & true love. Moreover, students who have a partner also showed higher beliefs in almighty love and only one & true love. On the other hand, for motivation of marriage, students showed higher inclination to choose for the desire for large families and children as their motivations, particularly for males. Students in the lower age group also showed higher inclination to choose for intimacy and economic needs as their motivations. Final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higher the students' beliefs for destined love and the lower it is for hopes for romantic love, predicted higher possibility for the social impact and the needs for personal growth as their motivation of marriage. Moreover, the higher the belief for destined love and hopes for romantic love, the higher it is of their inclination to consider intimacy and economic needs for their motivation of marriage. Lastly, the higher it is for the students' belief toward almighty love, the higher it is for one to marry with a consideration and desire for large families with children.

▲주요어(Key Words) : 낭만적 신념(romantic beliefs), 결혼 동기(motivation of marriage)

* 주 저 자 : 주언희 (E-mail : early0522@naver.com)

** 교신저자 : 유계숙 (E-mail : dongrazi@khu.ac.kr)

I. 서론

과거와 달리 오늘날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는 것은 '사랑'이다(Coontz, 2006).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에 있어서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는 평생의 반려자를 구하고 자식을 통해 가문을 잇는 동시에 좋은 가문과 사돈을 맺으며 가족의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던 과거 전통적인 결혼의 의미와는 크게 어긋난다.

개인이 직접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혼이 사회적 이상으로 자리 잡은 오늘날, 사랑이 결혼의 근본적인 이유가 됨으로써 결혼에 대한 미디어 이미지와 대중적인 묘사는 개인으로 하여금 낭만적 사랑을 품도록 촉진시켰으며, 낭만적 사랑은 현재 결혼의 개념에 있어 중심요소가 되었다(Barich & Bielby, 1996). 이로 인해 낭만적 사랑에 대한 기대와 관심의 증가는 비현실적 사랑에 대한 애정관인 '낭만적 신념'을 형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낭만적인 신념은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개념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즉, 비현실적인 결혼관은 관계에 대한 믿음과 잘못된 기대에 기초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배우자와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기대하며 결혼하게 된다(Elizabeth & Lawrence, 2000). 또한 지나치게 높은 낭만적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후 결혼 생활에서 낭만적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실망을 마주한다(Hustion et al., 1997).

이로 볼 때, 낭만적 신념은 최근 만혼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혼형태의 등장, 높은 이혼율, 낮은 출산율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에 있어 과거에 비해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결혼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낭만적이어서 결혼할 상대를 고르지 못하거나 자신의 이상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만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에 비해 실용적인 결혼 패턴이 등장함으로써 결혼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역설적으로 낭만적 사랑을 찾는 경향도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마사히로(山田昌弘)와 시라카와 도쿄(白河桃子)(2008)는 만혼과 싱글 라이프의 증가로 과거처럼 때가 되면 결혼을 쉽게 하는 시대는 가고 이제 '취직'을 준비하듯이 보다 좋은 결혼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는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낭만적 사랑을 기초로 한 결혼의 시작과 함께 결혼의 권위가 점점 쇠락해가면서, 결혼을 선택 가능한 '디저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부부관계는 오히려 더 깨지기 쉬운 것으로 변화하였다(Coontz, 2006). 동거와 독신 생활, 그리고 미혼모·부가 과거에 비해 증가 하였고 커플형태가 다양해졌으며 낭만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또한 낭만적인 사랑만을 중히 여김으로써 결혼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을 간과하여 결혼 후 생활을 현실적이고 지체롭게 수행해 나가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도 잦아 졌다. 즉, 결혼 후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가족간의 불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며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증가한 것으로 신혼기 이혼율이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법원(2009)에 따르면, 전체 이혼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혼부부들의 이혼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기 이혼율은 2004년 전체의 25.2%를 차지했으나 2008년 28.4%까지 늘어 4년 사이 3.2%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 전에 이혼하는 젊은 부부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지니고 있는 낭만적 신념은 결혼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 미혼으로 결혼을 앞두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에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낭만적 신념과 결혼 동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적극적인 이성교제 등을 통해 배우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첫 시기이므로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결혼 기피 젊은 세대들의 증가에 대한 현상기술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연구(이삼식 등, 2006a; 2006b)는 소홀하며, 원인 중의 하나인 낭만적 신념뿐만 아니라 결혼 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선행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을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과 결혼 동기의 전반적인 경향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이러한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학생의 사랑에 대한 바람직한 신념형성 및 결혼 준비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을 구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 및 결혼 동기의 경향과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낭만적 신념 및 결혼 동기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인구사회학적 특징(성별, 연령, 파트너 유무, 종교유무)이 동일하다면,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은 결혼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고찰

1. 낭만적 신념의 개념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일생에 한번쯤 낭만적인 사랑을 기대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다. 낭만적 신념은 사랑과 성 그리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라는 사회변화를 토대로 하고 있다(김영란, 2004). 국내에서는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낭만적 신념에 의한 결혼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급속한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추진된 1960년대를 거쳐 1970년에 이르러서야 낭만적 신념과 연애결혼이 현실세계에서 구체화되었다(이지연·신수진, 2004; 김수아·이소연, 2005).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낭만적 신념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애정관으로 형성되었으나, 국내에서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낭만적 신념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낭만적 신념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낭만적 신념은 12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일어난 사랑과 성 그리고 결혼에 관한 사고방식의 변화와 관련된다(Giddens, 2001). 낭만적 신념은 주로 신체적 매력에서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고, 이상에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첫눈에 반해 버리며, 말이나 접촉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정민자·박선영, 2003). 이러한 낭만적 신념을 통해 형성된 낭만적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선택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이 어느 날 찾아오는 신비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며(김영란, 2004), 이는 Lee(1977)의 5가지 사랑의 유형 중에서 열정적 사랑이라고 불리는 강한 정서적 감정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최근 낭만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사랑은 특별한 파트너 또는 진행 중인 관계를 연상한다(Cunningham & Antill, 1981; Peplau & Gordon, 1983; Sprecher & Metts, 1989). 이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낭만적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낭만적 신념은 전형적으로 배우자 선택에 대한 기초로서 계층, 지위, 문화를 넘어서 사랑을 제일 으뜸으로 생각하고, 첫눈에 반한 사랑, 오직 하나의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의 영원함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며, 용기 있는 커플들은 그들 앞에 서 있는 장애물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Cunningham & Antill, 1981; Knox & Sporkowski, 1968; Lantz et al., 1968; Peplau & Gordon, 1983; Sprecher & Metts, 1989). 이에 더해, 지나치게 높은 낭만적 신념은 사랑을 성(性)적 또는 정서적으로 자극적이고 신비롭다고 여기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에 기초를 두었다(Hendrick & Hendrick, 1986). 이와 같은 낭만적인 신념은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의미를 포함한다.: (1) 사랑은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 (2) 개개인마다 이상적인 파트너가 오직 한사람 존재한다.(예, 마음 맞는 이성(soulmate)) (3) 관계와 파트너에 대해 이상화한다. (4) 첫눈에 반한 사랑이다(Elizabeth & Lawrence, 2000).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낭만적 신념'을 결혼에 있어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이나 운명론적인 사랑을 통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랑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도달 불가능한 이상(理想)적 애정관으로 정의한다.

2.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낭만적 신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낭만적 신념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나, 그 범위를 사랑으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다. 즉, 성별, 연령, 종교, 사랑경험, 관계지위, 성역할 태도 등에 따른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연구 주제를 보다 명료화하기 위해 낭만적 신념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낭만적 신념의 경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별에 따른 낭만적 신념의 특징을 살펴보면, 낭만적 신념의 성차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낭만적이라고 말한다(Hobart, 1958; Kephart, 1967; Heiger & Troll, 1973; Fengler, 1974). 남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낭만적 신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자는 여자보다 진실한 사랑을 하기위해 오직 한사람과 결혼해야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를 더 낭만적인 성별(gender)로서 간주하였다(Peplau & Gordon, 1983; Sprecher & Metts, 1989).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낭만적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친구 같은 사랑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Hendrick & Hendrick, 1986; 정효택, 1994; 홍대식, 1996; 정민자·박선영, 2003), 이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사랑에 쉽게 빠지며 사랑하는 대상보다는 사랑자체에 의미를 두고 상대방에 대한 조건 및 결혼에 대한 전제에 의미를 두지 않으며 받는 것 보다는 주는 것에 더욱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낭만적 신념의 경향들을 살펴보면, 강영자 등(2000)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의 경우 논리적 사랑의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성교제 및 사랑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낭만적 신념에 근거한 사랑의 경향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애착형성에 따라 낭만적 신념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144쌍의 데이트 커플을 6개월 동안 종단적 연구를 진행한 Simpson(1990)은 안정된 내적 작동모형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낭만적 신념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더 많이 상호의존하고

전념하며 상대방을 신뢰할 뿐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만족스럽다고 지각한다고 밝혔다. 대조적으로 회피적 및 불안/양가적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더 적은 신뢰감과 더 적은 만족으로 특징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지위에 따른 사랑에 대한 태도에서는 커플은 싱글보다 낭만적 신념과 관련이 높은 열정애와 이타애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싱글은 커플보다 유희애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싱글이 커플보다 이성과의 사랑관계를 덜 진지하게 여기고 따라서 그러한 관계에 헌신하고 몰입하는 수준이 낮을 수 있음을 함축한다. 또한 관계에 대한 신뢰감과 관계만족도 수준에 있어서도 커플이 싱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강진경·정대연, 2001).

이에 더해 성역할 태도(gender role orientation)에 따른 낭만적 신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성역할 태도는 생물학적인 성별보다 관계적인 행동과 태도를 예측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여성적이고 양성적인 사람은 남성적이며 특성 없는 주제들 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하며, 그들의 관계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가진다고 보았다(Sprecher & Metts, 1989). 이는 개인의 여성성이 높을수록 여성성이 낮은 사람보다 낭만적 신념을 내포하기 쉽다는 Sprecher와 Metts(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여성성이 분명하게 낭만주의 신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Cunningham과 Antill(1981)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친밀한 관계의 역동성의 변수로서 성역할 태도를 간주한 선행연구들과 관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낭만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징으로 성별, 연령, 관계지위(파트너 유무), 종교를 설정하여 이를 통제함으로써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결혼 동기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의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판례였기 때문에 결혼하는 당사자보다 상대방 집안의 사회적 배경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으나 의식구조가 많이 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당사자 간의 개인적 배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김영옥, 1999; 이삼식 등, 2006). 이에 따라 결혼 동기 요인이 다양해졌으며, 학자들마다 다양한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결혼 동기의 하위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결혼 동기는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적 동기로는 성적 충족과 애정적·감정적 안정을 의미한다. 특히 자녀출산을 통해 자기존재, 종족계승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한편, 남녀의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동반자로서 같이 생활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인격적 성숙을 이루게 된다. 사회적 동기로는 사회적 유대감을 증대시키고 종족계승을 가능하게 한다. 즉 결혼을

통하여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안정된 신분과 지위를 갖게 되며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유영주, 1996; 김상희, 1999).

또한 이정우 등(1994)은 결혼을 하는 동기로 성적인 욕구충족, 경제적 안정유지, 정서적 안정유지, 자녀출산의 기회, 성인으로서의 신분획득, 그리고 사회적 기대의 부합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김양희와 이형실(1997)은 사랑의 실현, 성의 합법성 부여, 경제적 안정 추구, 자녀출산의 기회, 정서적 안정의 추구, 성인으로서의 신분 획득, 사회적 기대의 부합을 결혼 동기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안빈 등(2001)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는 동기를 성숙한 사랑의 실현, 성적 욕구의 충족, 경제적 안정 유지, 정서적 안정 유지, 자녀 출산의 기회, 부모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기대의 부합 7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한편, Stein(1975)은 결혼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결혼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으로서 사랑과 정서적 안정, 신체적 매력과 성, 자녀를 갖고 싶은 욕구, 대가족을 갖고 싶은 욕구, 경제적 안정, 이미 결혼을 한 동료의 영향,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부모의 인정이 있다. 다른 하나는 독신에서 벗어나도록 배척하는 요인으로서 독신보다 결혼을 지향하는 문화적 규범, 외로움, 부모의 압력, 경제적 압력, 독신에 대한 사회적 낙인, 독립에 대한 두려움, 대중매체에 반영된 독신 생활의 부정적 이미지, 독신에 대한 죄의식이 있다.

이러한 결혼 동기는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살펴 본 최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말하는 결혼관(김경신·이선미, 1998)의 영역까지 함께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이 가계계승이나 자녀출산을 위한 것이었으나 현대로 오면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정서적·심리적 안정이 결혼의 주요동기가 되었다(장영애·이영자, 2000).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결혼관도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으며(김두현, 1982), 이는 결혼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결혼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1978년 윤달원의 연구에서 한국 여대생들은 38.8%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응답했고, 1980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조사대상자들의 대다수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동원 등(1995)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대학생들은 다수가 결혼을 하는 중요한 이유로서 '사랑하기 때문에'(56.8%)와 '심리적 안정(17.6%)'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관습 15.8%, 개인 인격의 완성 3.9%, 경제적 안정 1.5%, 성적 만족 1.0% 순이었고, 어른의 지위획득, 부모로부터 독립, 자녀를 얻기 위해서에 대한 응답 비율은 1% 미만에 그쳤다. 또한 장영애와 이영자(2000)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결혼

을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36%)이며, 다음으로 정서적 안정(29.6%), 인간 성장(9.2%) 순으로 나타나 사랑과 정서적 안정과 같은 친밀감의 영역을 중요시 여김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에 따른 구체적인 결혼 동기 및 결혼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에 따른 결혼 동기 차이를 살펴 본 홍준숙(1987)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결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정신적, 심리적 안정이 36%, 여자의 경우 사랑이 41.1%로 나타났으나, 이동원 등(1995)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습 때문에 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남자와 여자의 결혼 동기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남녀 모두 결혼을 하는 중요한 이유로 사랑이나 정서적 안정에 두고 있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삼식 등(2006a)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배우자 조건으로 믿음과 사랑(28.1%), 외모 및 신체조건(21.9%), 성격(17.85), 건강(13.4%), 경제력(8%) 순으로 중요시 여기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믿음과 사랑(30.9%), 성격(18.4%), 경제력(17.3%), 외모 및 신체조건(9.7%), 건강(9.1%) 순으로 중요시 하였다. 이는 미혼인 여성들이 배우자 조건으로 경제력을 제1조건으로 뽑은 이삼식(2005)의 연구결과와 한국의 대학생과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 기준 및 결혼관을 조사한 김경신과 이선미(1998)의 연구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대체로 남녀 모두 사랑과 성격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는 외모를 그 다음 순위로 꼽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학벌이나 직업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는 결혼 후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안정성과 장래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경신 · 이선미, 1998).

한편, 어머니와 미혼 딸을 대상으로 결혼의 의의에 대해 조사한 이희옥(2003)의 연구에서는 딸은 사랑(28%)과 정서적 · 심리적 안정(25%)을, 어머니는 경제적 안정(15%)과 남녀의 행복(14%)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 딸은 사랑을 중심으로 개방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학교 및 고학년일수록 결혼 조건으로 믿음과 사랑, 성격, 경제력, 직업 등을 중요시 여기고 건강, 외모 및 신체조건, 종교 등은 덜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적 특성에 따라 부모간 관계가 나쁠수록 배우자 선택조건 중 성격, 외모 및 신체조건, 경제력 등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부모간 관계가 좋을수록 믿음과 사랑, 건강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이삼식 등, 2006a).

이에 더해, 이성교제와 결혼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는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학생들은 부정적인 태도가 더 우세하였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같이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순정을 지켜야 한다는 가치관에서 최근에 올수록 자유스러운 여러 이성교제를 통해 보다 적합한 사람과 결혼하여야 한다는 현실성을 더 추구하는 태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삼식 등, 2006b).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징으로 성별, 연령, 파트너 유무, 종교 유무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를 통제함으로써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4. 낭만적 신념과 결혼 동기의 관계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에는 당연히 사랑이 전제된다고 믿는다. 두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에 빠져야 결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정현숙 등, 2003). 이는 사랑에 대한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낭만적 신념과 결혼 동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 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낭만적 신념과 결혼 동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초 · 중 ·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삼식 등(2006b)의 연구에 따르면,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73.6%)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성별에 따라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 태도가 높았다. 또한 가족적 특성에 따라 부모간의 관계나 부모-학생간의 관계, 가구경제수준이 나쁠수록, 학생들은 배우자 선택에 더 신중성을 기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비해 결혼 동기나 결혼 조건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 관계 등 현실적인 조건 외에 사랑을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진 결과이며 이에 따라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있어 보다 신중을 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혼 동기들 중 정서적 · 감정적인 영역은 낭만적 신념과 연관성이 깊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헌신, 몰입 등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며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인생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친밀성, 몰입, 신뢰, 그리고 삶의 공유와 안정적이고 영원한 관계에 대한 기대 등을 모두 함축하는 사적인 동시에 공적인 표현으로써 결혼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인생의 공유와 서로에 대한 몰입은 행복하고 오랜 결혼생활을 한 커플들이 가장 많이 지목하는 결혼의 이유이다(정현숙 등, 2003).

이상과 같이 일반적으로 결혼 동기나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사랑의 존재 혹은 부채임을 고려할 때, 낭만적 신념은 결혼 동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낭만적 신념과 결혼 동기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낭만적 신념 및 결혼 동기

에 관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A 대학의 결혼 관련 교양 과목 수강생 중 남녀대학생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누락 및 부실기재 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94명의 설문결과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 39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은 남자 212명(53.8%), 여자 182명(46.2%)으로 남녀의 비율은 비슷하게 구성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9세 (SD=2.6)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8~19세가 전

체의 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21세 25.6%, 22~23세 14%, 24~25세 12.7%, 26세 이상 6.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년은 1학년이 4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2학년 19.3%, 3학년 18.8%, 4학년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트너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가 41.9%, '없다'가 58.1%이었으며, 종교의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가 60.9%, '없다'가 37.8%로 나타났다(<표 1> 참조).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낭만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Sprecher와 Metts(1989)의 'RBS(Romantic Beliefs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낭만적 신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후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를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N=394)

인구사회학적 특징		빈도(%)	
성 별	남 자	212(53.8)	
	여 자	182(46.2)	
학 년	1학년	182(46.3)	
	2학년	76(19.3)	
	3학년	74(18.8)	
	4학년	61(15.5)	
파트너 유무	있 다	165(41.9)	
	없 다	229(58.1)	
종교의 유무	있 다	243(61.7)	
	없 다	151(38.3)	
만 연령(세)	18~19세	162(41.1)	연령평균 (표준편차) 20.9(2.6)
	20~21세	101(25.6)	
	22~23세	55(14.0)	
	24~25세	50(12.7)	
	26세 이상	26(6.6)	

* 무응답으로 인하여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표 2> 낭만적 신념의 요인별 신뢰도

낭만적 신념의 요인	하위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사랑의 전지전능성	2, 5, 9, 11, 15	.84
운명론적인 사랑	6, 7, 8, 12	.70
낭만적 사랑의 기대	13, 14	.72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3, 4, 10	.69
전체 문항		.872

<표 3> 결혼 동기의 요인별 신뢰도

결혼동기의 요인	하위 문항	신뢰도(Cronbach's α)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	7, 8, 9, 10	.69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	1, 2, 5, 6	.47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	3, 4	.61
전체 문항		.633

떨어뜨리는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4문항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낭만적 신념의 하위 요인은 총 4가지로 구분되며,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72$ 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결혼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Stein(1975)의 결혼유도요인 및 독신배척요인을 기초로 10가지 결혼 동기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5점)'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3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결혼 동기가 강함을 나타낸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633$ 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2.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을 분석

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낭만적 신념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함으로써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 및 결혼 동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았으며,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낭만적 신념 및 결혼 동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차이검정(t-test,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의 구성요인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에 대한 14개 하위항목에 대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을

<표 4>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의 구성요인

(N=394)

낭만적 신념 척도(RBS) 문항	요인 부하값				h ²
	I. 사랑의 전지 전능성	II. 운명론적인 사랑	III. 낭만적 사랑의 기대	IV.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5.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떠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7	.22	.18	.17	.70
11. 우리의 관계가 의미 있다면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	.77	.22	.14	.21	.70
2.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우리의 관계를 찬성하지 않는다 해도 나 자신은 그(녀)에게 전념할 것이다	.74	.03	-.09	.10	.57
9.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반대에 부딪치든 돌이 멀리 떨어져 있든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다.	.70	.14	.31	.14	.63
15. 내가 누군가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의견차이나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0	.25	.42	.15	.62
12.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면 거의 한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05	.77	.06	.13	.62
6. 우연히 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난다면 만남이 얼마 되지 않아 곧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사랑임을 알게 될 것이다.	.15	.72	.11	.16	.58
7. 내가 평생을 약속한 사람에 관해서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나를 기쁘게 할 거라고 확신한다.	.45	.60	.09	.06	.57
8.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거의 이상적일 것이다.	.20	.55	.39	.07	.51
14.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상적인 로맨틱 파트너가 될 것이다. 즉 그(녀)는 나를 완전히 인정해주고 사랑하며 이해해줄 것이다.	.13	.19	.85	.07	.78
13. 나는 우리 둘의 관계에서 낭만적 사랑이 진정 오래 계속되어 시간이 흘러도 시들지 않기를 바란다.	.12	.06	.82	.09	.69
3.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랑을 다시 할 수 없을 것이다.	.14	.02	.06	.88	.80
10. 나에게 진정한 사랑은 단 한번 있을 것이다.	.24	.30	.09	.71	.65
4. 나는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사랑이라고 믿는다.	.30	.32	.38	.48	.57
누적변량(%)	21.74	37.40	52.13	64.20	$\sum h^2=8.99$

구성하는 4가지 하위요인은 사랑의 전지전능성(문항 2, 5, 9, 11, 15), 운명론적인 사랑(문항 6, 7, 8, 12), 낭만적 사랑의 기대(문항 13, 14),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문항 3, 4, 10)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들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약 64.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낭만적 신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의 수에 있어서는 미국의 선행연구(Sprecher & Metts, 1989)와 일치하지만,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문항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Sprecher & Metts(1989)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로 측정된 후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랑의 전지전능성(문항 2, 5, 9, 11, 13, 15), 오직 하나의 진실한 사랑(문항 3, 4, 10), 사랑의 이상화(문항 7, 8, 14), 첫눈에 반한 사랑(문항 1, 6, 12)과 같은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으나, 각 하위요인의 구성문항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구성문항이 유사한 요인의 경우 가장 큰 부하값을 가진 문항이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이 낭만적 신념의 유사한 하위요인들을 보인 것은 문화들 간에 또는 적어도 문명화된 문화들 간에 사랑 경험들이 공통적일 수 있다는 홍대식(1996)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에 있어 한·미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의 경우에는 양국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과 결혼 동기의 전반적 경향

1) 낭만적 신념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는 4.32점(SD=.93)으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낭만적 신념을 구성하는 4가지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낭만적 사랑의 기대'(M=5.48, SD=1.12)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M=3.82, SD=1.3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낭만적 신념에 있어 오직 단 하나의 사랑과 같은 비현실적인 사랑의 믿음보다는 실용적인 경향을 지님과 동시에 낭만적 사랑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우리 둘의 관계에서 낭만적 사랑이 진정 오래 계속되어 시간이 흘러도 시들지 않기를 바란다.'(M=5.86, SD=1.21)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은 낭만적 사랑의 영원함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나에게 진정한 사랑은 단 한번 있을 것이다.'(M=3.48, SD=1.77) 항목은 상대적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한국의 대학생들은 단 하나의 사랑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으며 실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의 전반적 경향

(N=394)

낭만적 신념의 요인	하위 문항	평균(표준편차)
사랑의 전지전능성	5.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떠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37(1.47)
	11. 우리의 관계가 의미 있다면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	4.19(1.59)
	2.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우리의 관계를 찬성하지 않는다 해도 나 자신은 그(녀)에게 전념할 것이다	4.47(1.53)
	9.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반대에 부딪치든 둘이 멀리 떨어져 있든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다.	4.85(1.45)
	15. 내가 누군가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의견차이나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35(1.45)
운명론적인 사랑	12.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면 거의 한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3.91(1.75)
	6. 우연히 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난다면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곧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사랑임을 알게 될 것이다.	3.91(1.47)
	7. 내가 평생을 약속한 사람에 관해서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나를 기쁘게 할 거라고 확신한다.	3.79(1.44)
	8.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거의 이상적일 것이다.	4.22(1.44)
낭만적 사랑의 기대	14.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상적인 로맨틱 파트너가 될 것이다. 즉 그(녀)는 나를 완전히 인정해주고 사랑하며 이해해줄 것이다	5.10(1.32)
	13. 나는 우리 둘의 관계에서 낭만적 사랑이 진정 오래 계속되어 시간이 흘러도 시들지 않기를 바란다.	5.86(1.21)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3.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랑을 다시 할 수 없을 것이다.	3.78(1.67)
	10. 나에게 진정한 사랑은 단 한번 있을 것이다.	3.48(1.77)
	4. 나는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사랑이라고 믿는다.	4.19(1.73)
전체평균(Range 1:전혀 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		4.32(.93)

<표 6> 대학생의 결혼 동기의 전반적 경향

(N=394)

결혼 동기	하위 문항	평균(표준편차)	요인 부하값*			
			I	II	III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	10. 이미 결혼한 주변 사람들의 영향	2.28(1.10)	2.46(.73)	.80	.02	.05
	9. 부모님의 압력	2.17(1.00)		.78	-.12	.10
	7. 사회규범에 따라	2.30(1.02)		.71	-.02	.19
	8. 나의 개인적 성장을 위해서	3.10(.97)		.50	.19	.08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	2. 신체적 매력과 성	3.64(.77)	3.89(.51)	-.04	.71	.01
	1. 사랑과 정서적 안정	4.42(.63)		-.27	.63	-.02
	6. 외롭지 않기 위해서	3.80(.94)		.23	.60	.02
	5. 경제적 안정	3.69(.94)		.12	.51	.21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	3. 대가족을 갖고 싶은 욕구	2.31(1.00)	2.78(.84)	.18	-.05	.84
	4. 자녀를 갖고 싶은 욕구	3.25(.99)		.10	.20	.81
전체평균(Range 1:전혀 중요하지 않다~5:매우 중요하다)		3.10(.45)				

* 주성분 분석 결과 산출된 요인 부하값

2) 결혼 동기

대학생들의 결혼 동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대학생의 결혼 동기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는 3.10점(SD=.45)으로 결혼 동기에 대해 다소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다. 결혼 동기의 3가지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M=3.89, SD=.50)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M=2.46, SD=.73)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한국 대학생들은 결혼을 하는데 있어 심리·정서적인 부분과 함께 경제위기에 놓여있는 현실로 인해 경제적 여건을 결혼의 중요한 이유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 개인적 성장 및 사회적 영향을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를 구체적인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사랑과 정서적 안정’(M=4.42, SD=.63)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 대학생들이 결혼에 있어 정서적인 부분을 중요한 가치로 여김을 알 수 있으며, ‘부모님의 압력’(M=2.17, SD=1.00), ‘이미 결혼한 주변사람들의 영향’(M=2.28, SD=1.10)항목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대학생들이 과거와 달리 타인에 의한 결혼 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혼을 중요시 여기며 자유혼을 지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3.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낭만적 신념과 결혼 동기의 차이

1) 낭만적 신념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인 성별, 연령, 종교유무, 파트너 유무에 따른 낭만적 신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서는 낭만적 사랑의 기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랑의 전지전능성, 운명론

적인 사랑,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사랑의 전지전능성에 대한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6.21, p<.001), 운명론적인 사랑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2.22, p<.05),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도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1.66, p<.10).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낭만적 신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낭만적 신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를 보다 낭만적인 성별로 간주한 Sprecher와 Metts(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낭만적 신념의 차이가 한·미간에 동일한 양상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 유무에 따른 낭만적 신념을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대학생이 종교가 없는 경우 보다 운명론적인 사랑의 믿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2.02, p<.05),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역시 종교가 있는 대학생이 종교가 없는 대학생 보다 더 높은 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t=2.93, p<.01). 이는 종교에서 섬기는 신이 운명적인 배우자 상대를 연결해주는 다거나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파트너 유무에 따라서는 현재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사랑의 전지전능성을 강하게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3.13, p<.01),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의 믿음도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2.65, p<.01).

끝으로 연령에 따른 낭만적 신념의 차이는 사랑의 전지전능성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생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 보다 낭만적 신념 중 사랑의 전지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F=2.29, p<.10).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의 경우 사랑에 대해 매우 현실적

<표 7>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낭만적 신념의 차이 (N=394)

인구사회학적특징	낭만적 신념		사랑의 전지전능성		운명론적인 사랑		낭만적 사랑의 기대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M (SD)	차이값	M (SD)	차이값	M (SD)	차이값	M (SD)	차이값		
성 별	남	4.76(1.18)	t=6.21 ***	4.06(1.16)	t=2.22*	5.45(1.08)	t=-.61	3.92(1.45)	t=1.66 †	
	여	4.07(1.02)		3.81(1.01)		5.52(1.17)		3.70(1.22)		
종교 유무	있음	4.50(1.22)	t=1.44	4.03(1.12)	t=2.02*	5.51(1.13)	t=.53	3.97(1.39)	t=2.93**	
	없음	4.34(1.06)		3.80(1.05)		5.45(1.11)		3.58(1.25)		
파트너 유무	있음	4.65(1.19)	t=3.13**	3.98(1.18)	t=.60	5.52(1.12)	t=.59	4.04(1.45)	t=2.65**	
	없음	4.29(1.12)		3.92(1.04)		5.46(1.12)		3.66(1.26)		
연 령	18~19세	4.38(1.10)	F=2.29 †	3.98(1.06)	F=1.30	5.53(1.12)	F=1.92	3.86(1.36)	F=1.62	
	20~21세	4.41(1.22)		3.95(1.10)		5.62(1.10)		3.86(1.19)		
	22~23세	4.23(1.16)		3.65(1.04)		5.15(1.07)		3.41(1.28)		
	24~25세	4.84(1.13)		4.10(1.24)		5.53(1.14)		3.94(1.59)		
	26세 이상	4.65(1.27)		4.00(1.16)		5.27(1.16)		4.06(1.53)		

†p<.10, *p<.05, **p<.01, ***p<.001

<표 8>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결혼 동기의 차이 (N=394)

인구사회학적특징	결혼동기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욕구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	
	M (SD)	차이값	M (SD)	차이값	M (SD)	차이값		
성 별	남	2.45(.75)	t=-.32	3.90(.54)	t=.41	2.86(.84)	t=2.07*	
	여	2.47(.71)		3.88(.48)		2.69(.84)		
종교 유무	있음	2.46(.74)	t=.08	3.92(.50)	t=1.50	2.79(.86)	t=.22	
	없음	2.46(.73)		3.84(.53)		2.77(.83)		
파트너 유무	있음	2.44(.73)	t=-.35	3.85(.52)	t=-1.46	2.81(.81)	t=.56	
	없음	2.47(.74)		3.92(.51)		2.76(.87)		
연 령	18~19세	2.44(.75)	F=.18	3.92(.49)	F=3.81**	2.77(.88)	F=.33	
	20~21세	2.44(.72)		3.86(.53)		2.72(.79)		
	22~23세	2.50(.75)		3.99(.47)		2.88(.87)		
	24~25세	2.47(.67)		3.91(.62)		2.79(.85)		
	26세 이상	2.54(.80)		3.54(.31)		2.83(.84)		

†p<.10, *p<.05, **p<.01, ***p<.001

이고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인다는 강영자 등(200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2) 결혼 동기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인 성별, 연령, 종교유무, 파트너 유무에 따른 결혼 동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성별에 따른 결혼 동기에서는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2.07, p<.05),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 동기 중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부계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남자가 여자보다 자녀출산 및 가족형성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결혼 동기의 3가지 요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의 경우 종교에 관계없이 보통 이상의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와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트너 유무에 따른 결혼 동기를 살펴보면,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와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에 의해 결혼을 하는 경향이 낮은 반면,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에서는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결혼 동기의 차이를 살펴보면,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에 의해 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81, p<.01).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다 결혼시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 외에 다른 결혼 동기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좀 더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4.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성별, 연령, 파트너 유무, 종교의 유무)과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 중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VIF값은 1.016~1.908로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인 성별, 파트너 유무, 종교의 유무, 연령을 회귀모형에 먼저 투입한 결과(Model 1),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의 변량을 0% 설명하는데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Model 2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징 변인들 이외에 낭만적 신념의 4가지 하위요인을 투입한 결과, Model 1보다 설명력이 4% 향상되어 결혼 동기 중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4%로 나타났다(F=1.78, p<.10). 낭만적 신념 중 운명론 적인 사랑은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beta=.16, p<.05$), 낭만적 사랑의 기대는 종속 변량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beta=-.15, p<.01$), 다른 통제변인들이나 독립 변인들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낭만적 신념 중 운명론적인 사랑의 신념이 높고 낭만적 사랑의 기대에 대한 신념이 낮을수록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에 따라 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 중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VIF값은 1.016~1.908로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인 성별, 파트너 유무, 종교의 유무, 연령을 회귀모형에 먼저 투입한 결과(Model 1), 친밀감 및

<표 9>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 중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에 미치는 영향 (N=394)

독립변인	Model 1		Model 2		
	B(S.E)	β	B(S.E)	β	
통제변인: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 별 ^a	.05(.08)	.04	.06(.09)	.04
	파트너유무 ^b	-.03(.08)	-.02	-.03(.08)	-.02
	종교유무 ^c	-.00(.08)	-.00	-.03(.08)	-.02
	연 령	.02(.02)	.05	.02(.02)	.06
낭만적 신념	사랑의 전지전능성			-.06(.04)	-.09
	운명론적인 사랑			.10(.04)	.16*
	낭만적 사랑의 기대			-.10(.04)	-.15**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04(.04)	.07
R ² (Adj R ²)		.00(-.01)		.04(.02)	
F for change in R ²		.29		1.78†	

†p<.10, *p<.05, **p<.01, ***p<.001

주1) a 성별 : 0=남성, 1=여성, b 파트너유무 : 0=파트너가 없다, 1= 파트너가 있다, c 종교유무 : 0=종교가 없다, 1=종교가 있다

주2) VIF = 1.016~1.908

<표 10>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 중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에 미치는 영향 (N=394)

독립변인	Model 1		Model 2		
	B(S.E)	β	B(S.E)	β	
통제변인: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 별 ^a	-.07(.06)	-.07	-.07(.06)	-.07
	파트너유무 ^b	-.06(.05)	-.06	-.06(.05)	-.06
	종교유무 ^c	-.09(.05)	.09†	.08(.05)	.07
	연 령	-.03(.01)	-.12*	-.02(.01)	-.10
낭만적 신념	사랑의 전지전능성			-.04(.03)	-.08
	운명론적인 사랑			.08(.03)	.16**
	낭만적 사랑의 기대			.07(.03)	.16**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01(.02)	-.02
R ² (Adj R ²)		.02(.01)		.08(.06)	
F for change in R ²		2.37†		3.87***	

†p<.10, *p<.05, **p<.01, ***p<.001

주1) a 성별 : 0=남성, 1=여성, b 파트너유무 : 0=파트너가 없다, 1= 파트너가 있다, c 종교유무 : 0=종교가 없다, 1=종교가 있다

주2) VIF = 1.016~1.908

<표 11>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 중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에 미치는 영향 (N=394)

독립변인	Model 1		Model 2		
	B(S.E)	β	B(S.E)	β	
통제변인: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 별 ^a	-.19(.09)	-.11*	-.10(.10)	-.06
	파트너유무 ^b	.05(.09)	-.03	.01(.09)	.01
	종교유무 ^c	.02(.09)	.01	-.01(.09)	-.01
	연 령	-.01(.02)	-.02	-.00(.02)	-.01
낭만적 신념	사랑의 전지전능성			.10(.05)	.14*
	운명론적인 사랑			.06(.05)	.08
	낭만적 사랑의 기대			-.02(.04)	-.03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01(.04)	-.01
R ² (Adj R ²)		.01(.00)		.04(.02)	
F for change in R ²		1.16		2.00*	

*p<.10, *p<.05, **p<.01, ***p<.001

주1) a 성별 : 0=남성, 1=여성, b 파트너유무 : 0=파트너가 없다, 1= 파트너가 있다, c 종교유무 : 0=종교가 없다, 1=종교가 있다

주2) VIF = 1.016~1.908

경제적 욕구의 변량을 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37, p<.10). 이들 변인들 중 종교유무(β=.09, p<.10)는 종속변량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연령(β=-.12, p<.05)은 종속변량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의 이유로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Model 2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징 변인들 이외에 낭만적 신념의 4가지 하위요인을 투입한 결과, 결혼 동기 중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8%로 나타나(F=3.87, p<.001), Model 1에 비해 설명력이 6% 향상되었다. 낭만적 신념 중 운명론적인 사랑(β=.16, p<.01)과 낭만적 사랑의 기대(β=.16, p<.01)는 결혼 동기 중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통제변인 중 종교유무와 연령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즉, 낭만적 신념 중 운명론적인 사랑이 높을수록, 낭만적 사랑의 기대가 높을수록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에 의해 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 중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VIF값은 1.016~1.908로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파트너 유무, 종교의 유무, 연령을 회귀모형에 먼저 투입한 결과(Model 1),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의 변량을 1% 설명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들 변인들 중 성별(β=-.11, p<.05)이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가 여자에 비해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에 의해 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Model 2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들 이외에 낭만적 신념의 4가지 하위요인을 투입한 결과, 결혼 동기 중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의 변량을 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F=2.00, p<.05), Model 1에 비해 설명력이 3% 향상되었다. 낭만적 신념 중 사랑의 전지전능성(β=.14, p<.05)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영향력은 통제변인들과 다른 독립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 중 성별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즉, 사랑의 전지전능성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결혼 동기 중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A 대학의 결혼 관련 교양 과목 수강생 중 남녀대학생 394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낭만적 신념을 구성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낭만적 신념 및 결혼 동기에 대한 전반적 경향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으며,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사랑의 전지전능성, 운명론적인 사랑, 낭만적 사랑의 기대,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으로 총 4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Sprecher & Metts(1989)의 연구와 전체적인 요인구성은 동일하나 부분적으로 요인별 하위문항의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둘째,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 및 결혼 동기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먼저 낭만적 신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4가지 하위요인 중 '낭만적 사랑의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오직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한국의 대학생들은 낭만적 신념에 있어 현실적인 경향을 지님과 동시에 낭만적 사랑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 동기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결혼 동기의 3가지 하위요인 중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결혼에 있어 사랑, 즉 심리·정서적인 영역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유혼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 동기의 3가지 요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징 변인들은 종속 변량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했으나, 낭만적 신념은 이를 설명하며 4가지 하위요인 중 운명론적인 사랑의 신념이 높고 낭만적 사랑의 기대에 대한 신념이 낮을수록 사회적 영향 및 개인적 성장 욕구에 따라 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들 중 종교가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의 이유로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낭만적 신념은 4가지 하위요인 중 운명론적인 사랑의 신념이 높고 낭만적 사랑의 기대가 높을수록 친밀감 및 경제적 욕구에 의해 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에 의해 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낭만적 신념에 대해서는 사랑의 전지전능성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결혼 동기 중 대가족 및 자녀에 대한 욕구를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점 및 시사점을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Sprecher와 Metts(1989)가 개발한 RBS척도를 그대로 번안하여 한국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낭만적 신념의 4가지 하위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Sprecher & Metts, 198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구성문항이 유사한 요인의 경우 가장 큰 부하를 가진 문항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들의 경우, 요인의 성격이 미국의 것과 조금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이상화(idealization)를 나타내는 내용(문항 7,8)과 첫눈에 반한 사랑의 내용(문항 6,12)에 있어 미국의 경우 이들이 각각 독립적인 범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이들이 운명론적 사랑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여서 나타났으며 낭만적 사랑에 대한 기대의 내용(문항 13,14)이 미국과 달리 독립적인 범주로 나타났다. 즉, 미국의 대학생들이 파트너에 대한 이상화와 첫눈에 반한 사랑에 대한 경향성이 한국에 비해 높으며,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생들보다 사랑에 있어 좀 더 현실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개인주의를, 한국의 경우 유교국가인 만큼 집단주의나 가족주의, 인정주의를 지적해 왔듯이(Hofstede, 1984; 최상진, 1993)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배경 및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낭만적 신념의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를 측정하는 척도가 부족하며, 대부분 미국의 것을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위항목들에 있어 미국의 것이 많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하위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여 낭만적 신념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하위요인의 문항 구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연구의 대상과 Sprecher와 Metts(1989)의 연구 대상 간에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시대적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낭만적 신념 및 결혼 동기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통해, 대학생들은 자신의 파트너에 대한 이상화나 낭만적 사랑의 지속성을 기대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있으며, 결혼 동기에 있어서도 심리·정서적 측면과 신체적 매력에 가장 크게 고려하며 자신의 선택을 중요시 여김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하여 연애를 하는데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연애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대에, 사랑에 대해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성공적인 연애를 하기 위한 방안을 책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사랑학 강좌를 적극 개설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대학에서 인간관계학의 일부분으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연애를 돕는 강의과목을 개설하거나 대학 학생상담센터 등을 통해 커플의 고민을 나누거나 성공적인 데이트, 스킨십 비법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 한 예로서, 서울 시내 몇몇 대학에서는 '성과 인간관계', '사랑학개론', '성과 심리', '사랑의 심리' 과목이 개설되었다(동아일보, 2007.05.26). 따라서 오늘날 대학생들이 사랑에 있어 좀 더 현실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성공적인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과 결혼 동기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낭만적 신념 중 운명론적인 사랑 및 낭만적 사랑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결혼 동기 중 사랑과 신체적 매력 같은 친밀감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낭만적 신념이 강한 사람일 경우 결혼 전 현실적인 준비 미흡을 야기할 수도 있다. 즉, 결혼 동기 중 친밀감에만 너무 큰 가치를 둔 나머지 결혼 전 고려해야 할 다른 요인들을 간과함에 따른 현실적인 결혼 준비 미흡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종 센터나 기관 등에서는 결혼 전 커플을 대상으로 결혼 전 현실적인 준비 교육을 실시하여 서로에 대한 배경 및 성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결혼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결혼준비교육을 의무영역으로

거의 모든 센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따라서 이러한 혼전 교육에 대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며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결혼 전 현실적인 준비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연령에 맞는 결혼준비교육, 수동적인 결혼을 지양하고 자기 주도적인 결혼을 하기 위한 결혼준비교육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준비를 선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미혼 남녀들은 자신과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상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탐색하고 자신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가꾸는 활동을 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취직을 준비하듯 좀 더 좋은 결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혼활(婚活, こんかつ)' 현상, 즉, 결혼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혼활 열풍은 일본의 결혼문화를 바꾸었는데, 혼활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 강사라는 직업이 생겼고, 혼활 전문 바(bar)가 성행할 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회원 가입하기 위한 스터디 모임까지 이뤄지고 있다(山田昌弘·白河桃子, 2008). 이와 같이 결혼을 위한 특별한 준비활동은 일본과 비슷한 실정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 결혼 성공법을 배우는 연애학원이 신설되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혼활 캠프가 진행되는 등 혼활 신드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운명적인 사랑을 기대하거나 낭만적 사랑을 이루기 위한 파트너를 기다리기 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즉,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는 등 실용적인 패턴을 찾으면서도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는 양가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과 낭만적인 측면의 차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혼활을 통해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노력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대학생 실태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낭만적 신념이 결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인으로서 성별, 연령, 파트너 유무, 종교의 유무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격유형, 성격할 태도, 원가족 배경, 사랑(연애)경험 등도 낭만적 신념과 결혼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연애경험은 현재 파트너가 없을 지라도 낭만적 신념 및 결혼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포함한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낭만적 신념과 결혼 동기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횡단적인 연구를 실시 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커플을 대상으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낭만적 신념이 결혼 전 결혼동기에서부터 결혼 후 적응 및 만족도, 이혼 여부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들의 낭만적 신념의 정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좀 더 나아가 커플을 대상으로 paired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낭만적 신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실제 결혼까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단기 종단적인 연구가 요구 된다.

【참 고 문 헌】

- 강영자·김윤희·박현숙·전형덕·김희경(2000).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 **한국생활과학지**, 9(1), 85-95.
- 강진경·정태연(2001). 사랑에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개인적 및 관계적 특성에서의 차이 :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6(1), 1-21.
- 김경신·이선미(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27-43.
- 김두현(1982). **현대의 가족**. 을유문고.
- 김상희(1999). 공주대학생의 성과 사랑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 연구. **공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4(1), 15-42.
- 김수아·이소연(2005). 결혼 의례의 기호학적 분석-낭만적 사랑의 신화와 성 역할 이데올로기. **한국인문정보학보**, 28, 43-76.
- 김양희·이형자(1997). **결혼과 가족**. 중앙대학교 출판부.
- 김영란(2004). 젠더화된 사랑-낭만적 사랑·모성애-과 보살핌 노동 : 여성복지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18, 199-221.
- 김영옥(1999). 우리나라 여대생의 배우자 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8(1), 29-43.
- 남순현(2003). 가족분화수준과 내적 표상이 대학생의 사랑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3), 89-109.
- 대법원(2009). 2009년 사법연감.
- 동아일보(2007.05.26). [80년대생들의 대학생살] 첫눈에 찍어 미련 없이 삭제...디카연애.
- 안빈·안혜선·김상연(2001). **결혼에의 초대**. 삼성실업.
- 유영주·김경신·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 윤달원(1978). **한국여대생의 성공적인 결혼관 지도를 위한 일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동원·김보란·김현주(1995). 남녀 대학생의 성격할 모델과 취업 및 결혼관.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91-212.

- 이삼식·정운선·김희경(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연구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등(2006a).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여성개발원·한국교원대학교.
- 이삼식 등(2006b).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여성개발원·한국교원대학교.
- 이정우 등(1994).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희옥(2003). **미혼딸과 어머니의 결혼의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영애·이영자(2000). 대학생의 결혼동기 및 태도. **인천대학교 논문집**, 25, 143-169.
- 장휘숙(2002). 애착과 사랑양식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5(4), 93-111.
- 정민자·박선영(2003).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사랑의 구성요소와 사랑유형분석. **생활과학논문집**, 5(1), 35-54.
- 정현숙·유계숙·최연실(2003). **결혼학**. 도서출판 신경.
- 최상진(1993).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 홍대식(1996). 한국 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준거. **한국심리학회지**, 10(2), 81-110.
- 홍준숙(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 논문.
- Giddens, A.(1992). 배은영 역(2001).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 山田昌弘(야마다 마사히로)·白河桃子(시라카와 도코)(2008). 「**婚活**」時代. **ディスカバ**-21.
- Barich, R. R., & Bielby, D. D. (1996). Rethinking marriage: Change and stability in expectations, 1967-1994. *Journal of Family Issues*, 17, 139-169.
- Coontz, S. (2006). *Marriage, a history: How love conquered marriage*. penguin USA.
- Cunningham, J. D. & Antill, J. H. (1981). 'Love in Developing Romantic Relationships', in S.W. Duck&R. Gilmour(eds). *Personal Relationships 2: Developing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and N.Y.: Academic Press.
- Dion, K. K. & Dion, K. L. (1985). 'Personality, Gender, and Phenomenology of Romantic Love', in P.Shaver(ed.). *Self, Situation and Social Behavior*. Beverly Hills, CA:sage.
- Elizabeth, A. S., & Lawrence, H. G. (2000). Raising Awareness About Marital Expectations: Are Unrealistic Beliefs Changed by Integrative Teaching?. *Family Relations*, 49(1).
-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endrick, C., & Hendrick,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 Huston, T. L., Niehuis, S., & Smith, S. (1997). Divergent Experiential and Behavioral Pathways leading to Marital Distress and Divorce.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Kurdek, L. A. (1993). Predicting marital dissolution: A 50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newlyw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 Larson, J .H. (1988). The marriage quiz: College student's beliefs in selected beliefs about marriage. *Family Relations*, 37.
- Larson, J. H. (1992). "You're my one and only": Premarital counseling unrealistic beliefs about mate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 Murray, S. L., & Holmes, J. G. (1997). A leap of faith? Positive illusions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3.
- Nathan, P. C., Jeffry, H. S., & Wendy, L.W.(2003). Development of the Attitudes About Romance and Mate Seltion Scale. *Family Relations*, 52.
- Peplau, L. A.&Gordon, S. L.(1983). 'Women and Men in Love: Sex Differences in Close Heterosexual Relationships', in V.E.O'Leary, R.K. Unger&B.S. Wallston (eds) *Women, Gender, and Social Psychology*. Hillsdale, NJ: Lawrence J. Erlbaum.
- Sprecher, S., & Metts, S. (1999). Romantic Beliefs: Their Influence on Relationships and Pattern of Change Over Tim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6).
- Sprecher, S., & Metts, S. (1989). Development of the 'Romantic Beliefs Scale' and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Gender and Gender-Role Orient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
- Stein, P. (1975). Singlehood: An alternative to marriage. *The Family Coordinator*, 24(4).

접수일 : 2009년 09월 15일

심사일 : 2009년 11월 03일

심사완료일 : 2009년 12월 02일